

# 기업 정보보호 예산 고작 1%...한국, 랜섬웨어 먹잇감 1순위

인터넷으로 감염...변종도 많아

암호 푸는 대신 '비트코인' 요구

국내 12곳 피해...공격 수천건

정부 투자 예산도 1% 못 미쳐

전문가 양성·기업 지원 시급

사용자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내부 주요 파일들을 암호화한 뒤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가상의 현금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랜섬웨어(ransomware)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최근 전 세계를 휩쓴 랜섬웨어 '워너크라이'(WannaCry)가 국내에서는 비교적 큰 피해 없이 지나갔지만, 날로 진화하는 사이버 공격에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까지 국내 기업 12곳이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피해 신고를 했으며, KISA의 기술지원을 받기로 했다. 또 의심신고는 16건이 접수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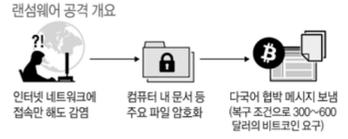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 넣은 것에 비해 국내에서의 실제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워너크라이의 공격시도는 상당히 거셌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스트시큐리티의 통합백신 '알약'이 탐지해 사전 차단한 공격 건수만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5000건이 넘었다. 백신 프로그램과 윈도우 운영체제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등 사전 조치가 없었다면 피해가 더욱 컸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영국의 20대 청년이 우연히 발견한 '킬 스위치'

세계 랜섬웨어 공격 피해 지도

● '워너크라이(WannaCry)'의 변종 랜섬웨어로부터 공격받은 윈도우 운영체제 컴퓨터



감염을 막으려면? 윈도우 보안체제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보안 패치 설치 (윈도 비스타 이하 버전 이용자는 윈도 7 이상의 운영체제로 업그레이드)

(kill switch)도 랜섬웨어 확산 방지에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킬 스위치'는 워너크라이를 무력화시키는 코드다.

하지만, 문제는 랜섬웨어가 날로 진화하고 있어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킬 스위치를 무력화한 2세대 변종이 잇따라 발견됐기 때문이다.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변종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킬 스위치를 우회하는 변종에 이어 킬 스위치가 없는 변종도 나왔고, 킬 스위치가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감염능력이 있는 변종까지 모습을 드러낸 상황이다.

이처럼 변종이 등장하고 PC뿐 아니라 스마트폰까지 확산하면 그 피해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17일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기업 12곳이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돼 사이버 공격에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악성코드에 감염된 컴퓨터 화면. /연합뉴스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그만큼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 현실은 그렇지 않다.

KISA의 '2016년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9000여개 기업 중 정보보호 예산이 IT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이상 기업은 전년보다 0.3% 감소한 1.1%에 불과했다. 반면, 사이버 침해 사고를 경험한 기업들은 전년보다 1.3%포인트 증가한 3.1%로 조사됐다.

랜섬웨어가 침해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7%로 전년 1.7%보다 17%포인트 급증했다. 대기업보다는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사이버 공격에 더욱 취약하다.

KISA가 지난해 국내 50개 제조공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공장의 80.5%는 정보보호 전담부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보안 투자도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에 따르면 올해 국내 정보보안 예산은 전년 대비 3.8% 늘어난 3508

억원으로 전체 국가 예산의 0.088%에 그쳤다.

이에 반해, 미국은 정보보호 예산이 190억달러(약 21조원)로 전체 국가 예산의 0.45%에 달했고, 영국은 19억유로(약 2조3000억원)로 국가 예산의 0.25%를 차지했다.

IT 강국을 외치는 한국이 보안 투자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보안이 취약한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과 고급인력 양성 등 사이버보안 관련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기용기자 pboxer@연합뉴스

## 새로운 해파리 은하 발견...별 탄생 비밀 풀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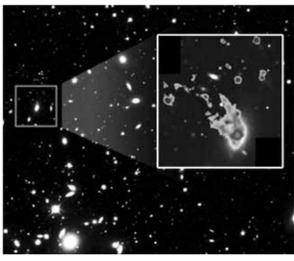
타원은하 배출 가스로 별 생성

거대한하단의 나선은하가 아닌 타원은하에서 해파리은하가 처음으로 발견됐다. 별 탄생의 비밀을 풀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천문연구원은 신윤경 박사가 이끄는 국제공동연구팀이 거대한하단 속 타원은하에서 가스의 꼬리가 나온 '해파리 은하' 모습을 처음 관찰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주 속 수천개 은하들이 모인 거대한하단은 나선은하와 타원은하 등 다양한 형태의 은하로 이뤄져 있다. 은하들이 강력한 중력을 갖고 근처에 뿜어내는 은하들을 중심으로 빨아들이게 된다.

이때 거대 은하단을 채우고 있는 뜨거운 가스의 압력 때문에 은하 안에 남아있는 차가운 가스들이 밖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면서 은하가 이동하는 반대 방향으로 긴 가스 꼬리가 만들어 지는데, 해파리를 닮았다 해서 '해파리 은하'라고 불렀다.



거대한하단 '아벨 2670'서 발견된 해파리 타원은하(사각형 안) (한국천문연구원 제공)

'해파리 은하'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해파리 은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은하 안에 차가운 가스가 많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파리 은하는 차가운 가스의 함량이 높은 나선은하에서만 발견됐다.

연구팀은 거대한하단 '아벨 2670'의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는 타원은하와 여기서

떨어져 나온 가스에서 꼬리가 휘날리는 해파리 모양의 은하를 발견했다.

타원은하는 차가운 가스 함량이 적어 별 탄성이 거의 일어나지 않으며, 대부분 나이 든 별들로 이뤄져 있다고 알려져 있었다.

연구팀은 타원은하에서 떨어져 나온 가스에서 새로운 별들의 탄성이 이뤄졌다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현재의 항성 종족 분류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신윤경 박사는 "해파리 은하에서 별이 형성되는 과정을 밝히기 위해 자외선, 전파 등 다파장 자료를 이용해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발견에는 칠레 소재 VLT(초거대 망원경)에 있는 연구장비 3차원 광시야 분광관측기 '뮤즈'(MUSE)가 사용됐다. 연구 결과는 천문학 분야 권위지 '천체물리학회지' '레터스'(The Astrophysical Journal Letters) 지난 1일자에 실렸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지구 '다이아몬드 빛줄기' 정체는 얼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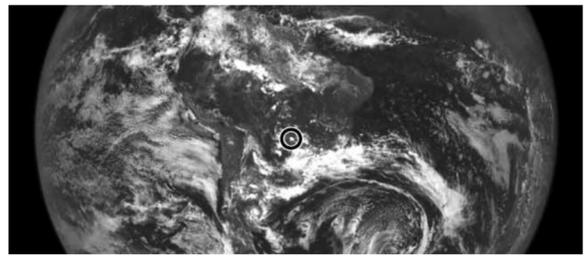
미국 항공우주국(NASA) 과학자들은 우주 공간에서 촬영한 지구로부터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빛줄기가 나오는 이미지를 관찰했다.

위성사진 상으로는 반짝이는 블루 다이아몬드 같이 보이기도 해 행계의 궁극음을 자극했다.

미 국립해양대기청의 심우주기상관측위성(DSCOVR)이 2015년 촬영한 사진에는 미스터리해 휩싸인 빛이 선명하게 포착됐다. 이후에도 NASA의 고다드 우주비행센터 등에서 문체의 빛줄기를 잡아낸 이미지를 1년8개월 간 862장이나 수신했다.

NASA는 1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지구에서 반짝이는 이 묘한 빛의 정체를 마침내 밝혀냈다고 발표했다.

NASA는 "빛이 발원하는 지점은 명백히 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빛은 얼음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특히 수평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의 반짝이는 빛. (NASA 사이트 캡처)

으로 대기 중에 떠도는 얼음 입자가 태양에 반사돼 나타난 것으로 결론 지었다"고 밝혔다.

이 빛은 1993년 고다드 우주비행센터의 알렉산더 마세크 박사가 처음 찍었다.

NASA 이미지도 보면 한 번은 남반구 남미대륙에서, 또 한 번은 아프리카 대륙 중심부에서 빛이 보인다.

그러나 수백 장의 이미지를 관찰한 결과, 태양과 지구의 각도와 관측위성-지구의 각도가 동일할 때만 이 빛줄기가 포착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어 아이스 크리스탈의 형태로 높은 대기권에 있는 얼음 결정이 태양에 반사돼 이같은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는 점을 밝혀낸 것이다. /연합뉴스

**2층 상가매매 (CGV 광주용봉점)**

카페(인테리어완료), 병원, 미용실, 학원, 당구장, 탁구장, 체육관 등

- 전용 289㎡ (약87평) 분양면적 약150평
- 현재 카페 인테리어(160㎡) 및 공실(129㎡)
- 매매 7억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원

**락 볼링장 매매 (CGV 광주용봉점)**

최신인테리어 락 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 분 유망사업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원

**문의 010-3647-4747**

상기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가 입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참숯구이 돼지갈비 전문점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솔향기 맑은터는 풍광을 자랑하는 그리고 혁신도시에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연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참숯구이 돼지갈비 13,000원** (눈,비오는날 9,900원)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